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문제 제기

북한의 사회체제는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능력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는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체제위기에서도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도의 사회통합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통합 능력은 강력한 물리적 억압체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념적 억압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서도 유래한다.

특히, 다양한 언론매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외부정보의 유입도 강력하게 억제해 일방적인 정보만 유통시킴으로써 체제지향적인 정치적 담론만이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078).

이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적 담론도 획일화되며 사회구성원의 세계관도 동질화된다. 예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이나 여가의 의미와 같은 일상적인 의식도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선전선동을 통한 윤리적 동기유인이 사회주의체제의 본질 중 하나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언론 통제와 담론의 배타적 지배는 북한만의 특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와 효과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장기존속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국가의 지배담론이다.

반면 북한체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배담론의 지속과 균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국가의 지배담론 재생산 기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되는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는 북한 지배층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체제 내부의 정보유통 경로와 방식, 권력에 의한 독점적인 담론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제 존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개방정책은 외부체제와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외부 정보의 유입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악화된 경제난에서 비롯된 공교육체제의 부실은 공식 담론의 가장 핵심적 전달기제를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붕괴에 직면한 국가 주도의 기업시스템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을 묶어뒀던 조직적 통제를 약화시켜 사회이동의 폭발적 증가를 허용했고, 이는 체제 내의 새로운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동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와 공식적·비공식적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상인의 빈번한 왕래도 외적 정보가 유입되는 또 다른 경로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성화된 남북교류도 제한적이거나 새로운 정보유통의 통로가 되었다.

이 글은 북한체제의 변화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배담론의 변화 과정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지배담론의 변화는 대항담론의 형성과 잇닿아 있다. 즉, 대항담론의 형성은 역으로 지배담론의 균열이며, 동시에 대항담론의 성격은 사회변화의 양상을 전망하게 해준다.

대항담론은 여러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사적 담론이다. 강력한 사회통합을 유지하려는 북한에서, 공적 영역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까지 다양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한 북한에서 사적 영역은 지극히 제한되어왔다. 당 조직과 작업장 그리고 인민반에 이르는 다층적인 생활총화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적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적 영역의 축소는 사적 담론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적 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그 자체로 지배담론의 균열과 새로운 대항담론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적 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적 담론 형성과 관련된 논의의 준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주의체제의 담론구조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 간의 관계적 상호작용에 주목해 살펴볼 것이다. 공적 담론이 지배적인 체제에서 사적 담론이 존재하는 형태는 어떠하며,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역할분업 구조는 어떤지, 또한 공적 담론이 지배적 위치를 잃게 되는 전환기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떤 경로와 형태로 사적 담론이 만들어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공식 담론 형성의 주요 기제를 교육·조직활동·언론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1990년대의 위기 상황에서 이 기제들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을 검토할 것이다. 경제난에서 비롯된 기업 활동의 실질적 붕괴와 배급제 외해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조직생활의 붕괴가 담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물질 토대의 약화로 초래된 교육체제의 변화와 전형적인 정치사회화 기제의 기능 저하가 공적 담론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사적 담론의 구체적인 형성 여부를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최근 소설이다. 2000년대 이후 발간한 소설을 중심으로 사적 담론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사적 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① 사적 담론의 조건(공간과 네트워크), ② 사적 담론의 내용(주제 및 소재), ③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관계, ④ 사적 담론과 사적 영역의 확대라는 네 가지 측면에 비춰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사적 영역과 사적 담론

공적 영역이 공동체에서의 공개적 영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적 영역은 국가나 국가의 업무 이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 영역 혹은 사생활은 사실 어떤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했으나,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근대 사회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¹⁾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국가와 지배층으로부터 소외된 귀족층의 출현, 사상적으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기대에서

오는 강압으로부터의 자유의 추구, 또한 공과 사를 정치와 사회로 구분해왔던 고대 그리스적 사고에 맞서 후자, 즉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은둔(retreatment)과 초탈(detachment)까지를 의미하는 개인적·사적 공간의 강조와 관련되어 있다.²⁾

중세 사회가 붕괴하면서 지배형태에서 결합되어 있던 사회적 재생산과 정치권력 요소들이 분리된다. 시장경제적 관계의 확장과 더불어 신분적 지배의 한계를 넘어 관리행정의 형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회’ 영역이 발생하였다. 민족국가와 영토국가에서 중앙 집중화된 공권력이 사회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사회는 비록 그것의 교류관계가 처음에는 관청의 간섭에 의해 지도되었더라도 사적인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런 사적 영역은 중상주의적 규제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비로소 사적 자율성의 영역으로 발전한다.³⁾

우리들은 통상 사적 영역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사적 영역은 개인적 영역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활활동은 개인들이 협력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견·발전시킬 수

-
- 1) 아리에스 외 엮음, 『사생활의 역사 1·2·3』(서울: 새물결, 2002) 참조.
 - 2) 이영림, “근대 초 프랑스에서의 사적 영역의 창출: 개인, 사회, 국가,” 164쪽; 김득룡, “공적 삶과 사적 삶: 제3의 사적 영역의 가능성,” 『범한철학』, 19집 (1997), 42쪽.
 - 3)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원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1), 245쪽. 하버마스는 주목하는 것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양극화의 길을 걷지만, 복지국가의 출현 등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시 사적 영역이 축소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상호침투(mutual infiltration)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버마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공론장이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생활세계에 정박해 있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매개하고,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을 매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있는 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적 영역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학자 중 한 명이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절대 권력이 와해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공론의 장은 절대대성이나 수호자에 의해 사전 기획된 결론에 도달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된 영역이다. 이러한 공론의 장은 절대국가의 붕괴와 더불어 초래된 사적 영역의 출현에서 시작된다. 공론장은 항상적으로 조직되지 않는 영역이고 자발적 결사는 자율적인 공론장과 결부되어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공론장은 시민사회적 기초를 매개로 생활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소통구조를 의미한다. 정치적 공론장은 임의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⁵⁾ 한편 공론장에서의 제약 없는 논의(discussion)와 민주적 결사(association)는 시민사회의 조건이 되며 이것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⁶⁾

한편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의 구조적 영역들에 주목하면서 권리의 복합체를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한다. 첫째, 문화적 재생산과 관련된 권리로 사상, 언론, 표현, 소통의 자유가 있고, 둘째, 사회적 통합

4) 고르(André Gortz)는 사람들의 활동을 세 가지 차원, 즉 ① 사회적 필요에 의해 명령된 경제적으로 합리적 노동(타율노동), ② 개인 욕구와 일치하는 스스로 명령한 활동(자율노동), ③ 필요노동이지만 타율노동이 아닌 자활활동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미시사회적인 자활활동은 가족과 시민사회가 얽힌 사회조직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노동이 미시적 사회관계망을 만들어 내는 자활활동이다. 문순홍, “앙드레 고르: 현대 자본주의 비판과 사적 영역의 재탈환 정치,” 『문화과학』, 통권 제27호(2001년 가을), 235쪽.

5)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155~160쪽.

6) 위의 글, 167쪽.

을 확보할 권리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셋째, 사회화를 보장하는 권리로 프라이버시, 친밀성, 개인의 불가침성에 대한 보호가 있다.⁷⁾

역사학에서 비롯된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나 이론들은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나 자본주의 내에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전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당·국가체제의 붕괴와 민주적 질서의 확립이라고 본다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 소통구조와 제약 없는 논의 환경, 코헨과 아라토가 주목하는 소통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친밀성의 보호는 사적 영역의 형성에서 사적 담론이 중요한 단계임을 말해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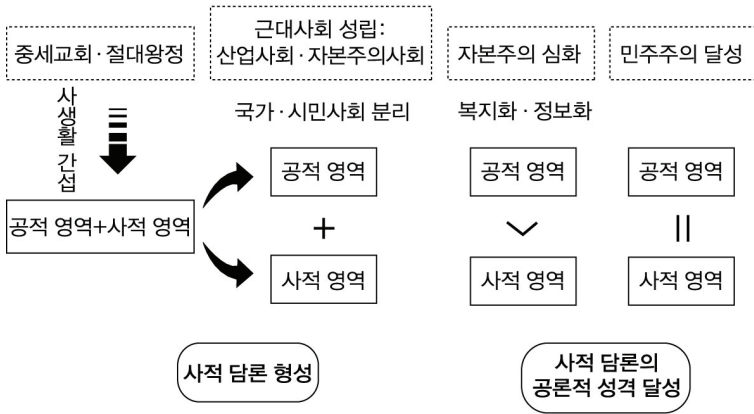
사적 영역에서 사적 담론이 중요한 것은 사적 영역이 밀폐된 개인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서 분리된 사적 영역이 새로운 체제 변화의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⁹⁾ 국가나 체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사적 영

7) Cohen, J and A.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Boston: MIT Press, 1992), p. 441.

8) 사적 영역의 성립과정에는 사적 소통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사적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예술 장르에서도 새로운 장르 혹은 새로운 형식이 대두된다.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사적 영역의 성립 및 근대적 개인의 탄생 그리고 편지 형식 소설과의 관련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제20호(2002) 참조.

9) 자본주의 성립과 핵가족화 이후 여성이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유폐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적 영역이 이러한 경우이다. 한편 사적 영역의 확대는 공적 영역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홍균, “사적 영역의 팽창에 의한 공적 영역의 파괴,” 『현상과 인식』, 30권 3호(2006. 9) 참조.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개인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개념이 불분명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근대 이후 사회변화와 사적 영역 및 사적 담론



역화가 생겨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때 새로운 영역들이 서로 연결 되어야 체제의 변화와 관계되는 유의미한 사적 영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것이 사적 소통 혹은 사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사적 영역이나 사적 담론에 관련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성립 및 변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체제, 특히 사회통제 체제가 완벽에 가깝게 구축되어 강력한 사회정치적 통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특성상 개인의 영역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또한 공식적 통제 체제¹⁰⁾와 더불어 당적 지배뿐 아니라 작업장에서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중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총화는 개인의 영역을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세의 교회나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일상생활까지 간

10) 물리적 통제와 더불어 배급체제로 상징되는 다양한 사회통제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접했던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북한의 일상 영역에서 사적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면 북한체제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적 담론의 형성은 북한체제 유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배담론의 약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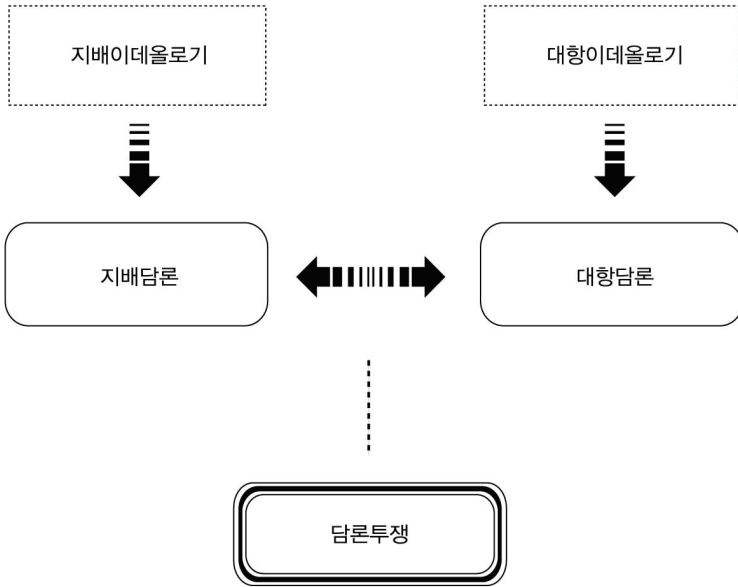
3.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담론 혹은 ‘언설’은 주류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보다 긴 의미의 집합체(textual unit)를 의미하며,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론적 요소들이 언어학의 영역에서 담론을 다룰 때 초점이 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연구에 관심이 있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발화되거나 문자로 쓰인 서류나 진술문(statement)에서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유통되는 크고 작은 종류의 이야기나 텍스트 혹은 발화의 집합을 담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담론이론과 담론분석에서 정의하는 담론은 언어적·이야기적이고,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며,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인식·재현·주장을 담고 있다.¹¹⁾

그러나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담론분석이 주목할 점은 담론이 행사하는 의미구성의 작용이며, 나아가서는 의미나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행사하는 권력 작용이다. 먼저 공적으로 형성·유통·순환되는 담론들은 이들 담론을 지지하거나 채택하는 이에게 특정 주제나 현상을

11)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2006, 가을), 109~1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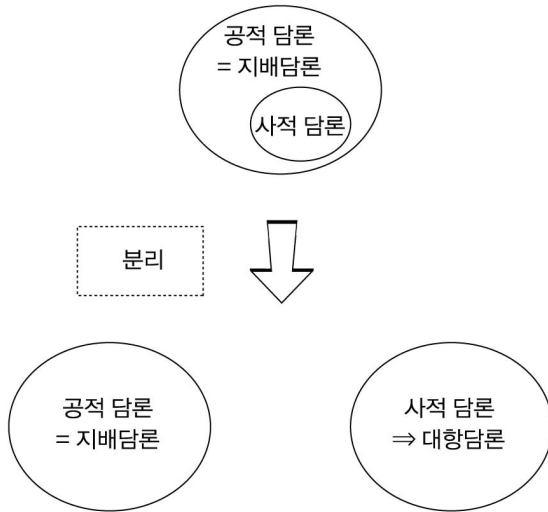
<그림 2> 지배담론과 담론투쟁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이나 필터를 제공하며, 일종의 진실효과(truth effects)를 동반하기도 한다. 즉, 특정 정치주체나 제도로 생성되는 담론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안을 보는 입장과 시각이 만들어지며, 특정한 담론의 영향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한 ‘담론화된 진실’과 현실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담론은 사회 내의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며, 언어와 상징, 기호,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통해서 지배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피지배자들의 동의의 구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요소라고 하고 있다.¹²⁾

12) 위의 글, 119쪽. 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60년대 이후부터 담론 연구는 주로 지배담론의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제1장 참조 부르디외가 주목하는 상징권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호, “사회

<그림 3> 공적·지배담론과 사적·대항담론



따라서 담론분석은 지배담론과 연결되는데, 지배담론은 지배이데올로기를 구현하면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배적 담론하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과 동일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이때 변형되고 치환된 결과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대항담론이다.¹³⁾ 사회 변혁 과정에서는 지배담론을 대체하는 대항담론의 형성이 필요한바, 이 과정에서 담론투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¹⁴⁾

질서의 재생산과 상징권력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1998) 참조.

- 13) 백선기·김소라,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동성애에 대한 ‘매스미디어’와 ‘게이 커뮤니티’의 담론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6(1998), 83쪽.
- 14) 이종영, “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을 둘러싼 담론투쟁에 대하여,” 이영환 엮음,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서울: 함께읽는 책, 2003) 참조.

담론투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배담론의 해체가 동반되는데, 지배담론의 중심인 공적 담론과 구분되는 사적 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배담론이 사적 담론에도 관철될 수 있으나, 기본은 공적 담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항담론은 그 출발이 사적 담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항담론은 지배담론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담론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배적·공적 담론의 분리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 사적 영역이고 이곳의 담론이 사적 담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적 담론이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공적 담론과 배치되면서 대항담론의 토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 북한 공적 담론의 형성과 위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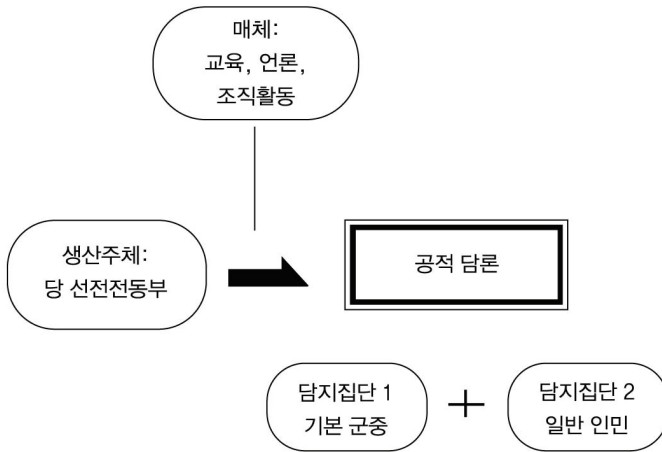
1) 공적 담론의 형성 과정: 혁명구호의 경우

북한의 공적 담론은 당의 선전선동부가 생산하고 교육제도, 언론, 조직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담론의 핵심 담지집단(carrier group)은 핵심 군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2차 담지집단은 일반 인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혁명구호(강령적 구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구호의 작성과 제시 과정을 보면 지배담론이 만들어지고 수용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당 창건기념일, 정권창립기념일 등을 맞아 각 분야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혁명 구호는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부 선전과에서 작성한다.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부에서는 당 및 정부 각 부서들에

<그림 4> 공적 담론의 형성 과정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구호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 분야별 당면과제, 달성해야 할 계획 목표, 해당 분야의 중심 고리¹⁵⁾ 등을 고려하여 구호를 작성해 선전선동부에 제출한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이를 종합해 초안을 작성하고, 선전담당 비서를 경유하여 총비서의 비준(결재)을 받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당중앙 조직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당 창건일 행사는 조직지도부가 총괄하므로 그 일환인 구호의 작성·제시도 조직지도부와 교감을 유지)해야 한다.

군사 분야 구호는 선전선동부에서 총괄하는 강령적 구호를 주로 이용하나, 시사적인 구호는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수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이에 따라 총정치국 선전교육부에서 당면과제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작성하고, 선전담당 부총국장을 경유해 총정치국장

15) 사물현상의 연쇄 가운데서 다른 고리들을 규제하는 고리를 말한다.

의 기준을 받아 확정한다. 전투 및 훈련 시에 수시로 제시해야 할 구호는 중대와 대대 정치지도원 또는 연대 정치부에서 작성하여 연대 정치위원의 기준을 받아 활용한다. 다음은 군의 혁명구호의 예이다.

“중대를 일당백의 전투대로 더욱 강화하자!”

“중대원들은 김정일의 제1결사대, 제1호 방위병으로 준비하자!”

중앙당뿐 아니라 산하 각 조직은 산별 구호나 돌격노동 시 구호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이러한 구호는 전개된 각 상황에 따라 각급 당 정치위원들의 비준하에 작성한다.

“비료는 쌀이다”, “옥수수는 밭곡식의 왕이다” 등

작성된 혁명구호는 다양한 차원의 검열을 받는다. 검열은 당에서 작성한 구호지만, 이를 플래카드나 표어판 등에 제시할 때에는 내각 출판총국 검열부나 현지 파견된 검열원들에게 검열을 받고 통과된 뒤에야 게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속보판 등은 검열에서 제외된다. 검열원은 당이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게재되었는가, 플래카드나 표어판에 손상된 곳은 없는가, 규격이 적당한가 등을 검열한다. 수시검열은 해당 구호를 본 대중의 반응을 측정해 장단점을 상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당창건기념일 등에 제시되는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구호는 당중앙 선전선동부에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 등과 조선중앙통신사 및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에 배포해 공개 제시한다. 『로동신문』 등의 사설과 논설, 방송 해설 등의 내용에 중요 구호들을 포함시키거나, 그 구호들을 제목으로 설정·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시한다.

인민군 총정치국과 각 산업별 당기구들에서 자체로 작성하는 구호들은 해당급 정치부들에서 임의로 제시할 수 있다.

검열까지 마치게 된 혁명 구호는 각종 공공건물의 외벽을 장식하거나, 건물 내부의 게시판 등에 걸리게 된다.¹⁶⁾ 중요한 구호의 경우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제시되고, 경우에 따라 구호를 활용한 소설이나 영화화도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의 수업이나, 다양한 수준의 총화에서 학습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구호가 갖고 있는 담론적 성격이 해설을 통해 동반된다. 반복적인 학습과 토론, 미디어를 통한 반복적 제시, 건물 내외의 장식을 통해 일반 북한 인민들을 혁명구호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공적 담론의 위기 배경

북한의 공적 담론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여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적 차원의 문제이다. 당의 조직 축소 및 당 역할 축소와 같은 변화는 공적 담론의 일차적 담지집단을 축소시켰다.¹⁷⁾ 더욱이 담론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조직 중 선전부의 위상이 하락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¹⁸⁾ 또한 과거와

16) 구호의 비중에 따라 장식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중요한 구호는 석재로 장식되어 장기간 게시되며, 일반적 구호는 도색을 통해 게시된다. 실내 게시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게시되는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17) 2000년부터 실리주의가 강조되면서, 일선 조직에 대한 축소가 진행되었고, 7·1 조치 이후 축소가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직맹, 사로청, 여맹 이런 조직들은 30% 정도의 인원 감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기존 공적 지배담론의 중요한 담지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탈북자 면접 PS2, 2005. 11. 4).

18) 선전부가 인기가 없는 것은 뇌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화된 것은 조직부, 간부부, 그리고 당원 등록과라고 한다. 그래서 선전부 일꾼들을 “손가락을 빨고

달리 당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당원의 인기가 하락하고,¹⁹⁾ 경제난으로 2003년부터 진행된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근로조직이 포함된 공조직의 축소도 공적 담론을 떠받치는 담지집단의 양적 축소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당조직과 행정조직의 불균형 확대, 부서 간 영향력의 불균형 노정도 공식 담론의 약화와 관계가 있다.²⁰⁾ 그리고 통제체제 자체도 점차 이완되면서 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확대되었고,²¹⁾ 이 역시 공식 담론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²²⁾

다음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식량난 이후 배급체제가 붕괴된 현실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된다. 배급제는 식량의 수급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공식조직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급제가 와해되면서 공식적 사회조직인 일터가 붕괴하고,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7·1조치로 시장이 활

있다”라고 한다(탈북자 면접 PS21, 2005. 11. 6). 조직 축소에서도 선전부 쪽이 가장 타격이 컸다고 한다.

- 19) “2000년 이후 고난의 행군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또 돈만 있으면 현재 1만 원 정도 찢어주고, 나이가 한 27살 이상 되면 당원 등록 과정을 통해서 입당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한다. 그렇지만 이제 당원이라고 해서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간부사업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탈북자 면접 PS21, 2005. 11. 6).
- 20)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서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원, 보위성원, 군인들과 반대급부를 얻기 어려운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 21) 심지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장에 배치받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년 동안 버텨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 22) 정치교육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체제 통합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생활총화에 빠지는 주민들도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비판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 생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6), 98~99쪽.

성화되면서 공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 영역이 활성화되고 공적 담론의 장 자체가 축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텃밭의 소유와 개인경작의 확대, 상업의 활성화는 사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친인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생계 유지의 연결망으로 작용하면서 사적 소통의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²³⁾ 이와 더불어 권력기관의 부패로 부를 축적한 개인과 당료·관료의 결탁과 같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공적 담론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업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새롭게 생겨나는 당구장과 같은 유흥공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구장이나 오락실의 확대는 단순히 새로운 여가공간이 확대되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여가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공적 담론에 대항하는 사적 담론의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새로운 세대들을 식량난을 경험하면서, 당의 공식적인 교양 내용과는 다른 의식구조를 갖게 된다. 실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향이며, 개인 부업을 중시하고 수입이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잘 드러내준다.²⁴⁾ 새 세대는 기존 세대와 의식 차이를 보이면서 공식적인 담론구조와도 유리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미신을 포함한 무속이 활성화되는 것도 공적 담론

23)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에서 땅을 나누어주어 개별 혹은 소집단별로 경작하여 식량을 해결하도록 했다고 한다(탈북자 PS17 면접, 2006. 2. 28). 공식 영역이 와해되면서 친족 등의 비공식·사적 관계가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광역, “중국 연구를 위한 방법론: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2권 2호(2002) 참조.

24)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이 약화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무속은 공식적으로 비판받은 행위이지만 고달픈 북한 인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면서 식량난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부터 신수, 액 막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무속신앙이 활성화되는 것은 공적 담론과 다른 담론이 형성되는 조건이 된다.²⁵⁾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보급 확대도 공적 담론의 약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정한 부를 축적하면서 구입하는 가전제품에서 TV와 비디오는 우선순위를 점한다. 특히, 비디오는 중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화까지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기존 담론과는 완전히 다른 담론 형성을 촉발할 수 있다.²⁶⁾ 시장과 더불어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전화가 증설되는 것도 사적 담론 형성의 토대가 된다. 일부 접경지역에서는 중국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이며,²⁷⁾ 내륙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증설한다고 한다.²⁸⁾

식량난 이후 심화된 공교육체제의 붕괴도 공적 담론 약화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과 교사도 늘고, 경제난으로 책과 공책을 포함한 기초 학용품마저 부족한 현실에서

25) 심지어 잘 맞춘다는 점쟁이를 찾아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26) 탈북자들은 북한 문화 콘텐츠보다 중국이나 한국의 콘텐츠가 더욱 인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디오와 더불어 CD를 볼 수 있는 기기가 인기가 이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와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북한의 공식 방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탈북자 PS18 면접, 2006. 2. 28).

27) 탈북자들은 2000년경부터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탈북자 PS1 면접, 2004. 10. 31).

28) 장사꾼들은 대부분 전화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매 단위 장사꾼은 전화로만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공교육의 붕괴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²⁹⁾ 반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교과목뿐 아니라 아코디언, 피아노와 같은 예능 분야까지 사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공적 담론과 다른 내용의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식량난 이후 시장의 활성화 7·1조치의 시행 등은 북한의 기존 계층구조를 흔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계층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전통적인 담론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전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의 위상이 상승하고,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으로 경제적 혜택을 입은 월남자 가족마저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³²⁾ 새로운 담론의 형성될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9)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중학교의 한 반의 정원 40명 중 학교에 나오는 학생이 4~5명인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탈북자 PS1 면접, 2005. 10. 31). 교원을 지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한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이트 교원들이 죽는 등 교원 자체도 부족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북한 내에서도 촌지가 활성화 되면서 학교 내 신뢰 분위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22, 2006. 3. 22).

30) 교사의 경우 봉급이 3일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였으나, 장사 등으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들 집안 아이들에게 개인적 교습을 해주어 수입을 얻는다고 한다. 탈북자 면접 PS22, 2006. 3. 22).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교사가 2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급의 개인 교습도 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31)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미의 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 2005) 참조.

32) 월남자 가족은 한국전쟁 시기 남한 군대의 북한 점령 시 도움을 주었던 ‘치안대’ 출신들과 더불어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최하위 계층이었다. 그러나 상봉 이후 남한의 가족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월남자 가족들이 이를 밑천으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이제는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다.

<표 1> 공적 담론 위기의 환경

	내용	관련 사항
당직 차원	조직 축소 및 변화	담론매체의 약화
	선전부의 위상 하락	담론 생산주체 약화
	당원의 인기 하락	담지집단의 축소
	근로조직의 약화	담지집단의 축소
	당조직과 행정조직의 불균형 확대	담지집단의 축소
	이완된 통치체제	담론매체의 약화
경제적 차원	배급제 추락과 7·1조치로 시장 등 사적 경제 활성화	담론전달 과정 약화
	친인척 중심의 새로운 경제단위 부상	대안적 담론 환경조성
	권력기관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네트워크 형성	담론전달 과정 약화, 새로운 소통구조 형성
사회적 차원	새 세대의 약진	새로운 담지집단 형성
	미신 등 종교 활동 활성화	대안적 담론 형성
	비디오 등 대안적 매체의 보급	대안적 담론 형성 환경
	전화 증설로 사적 소통구조 확대	사적 소통구조 활성화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 활성화	담론 전달력 약화, 사적 담론 형성 가능성
외부 차원	접경지역을 통한 중국 정보	새로운 담론 형성 환경
	남북교류를 통한 남한 정보	새로운 담론 형성 환경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공적 담론의 약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농업 부분의 몰락뿐 아니라 공업 부분의 붕괴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 생필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산품의 첫 번째 출처는 중국이다. 공식·비공식 교육을 통한 중국 문물의 유입은 당연히 새로운 정보의 유입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 확산되는 남북 간 교류도 새로운 정보 유입의 통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들만이 남한 사람들과 접촉한다고는 하지만,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북한을 방문하

면서 북한에 전달하는 남한 문화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³³⁾

북한은 모기장론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황색문화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지만, 접촉의 증대와 동반하는 새로운 문화 유입의 봉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영화나 드라마 등 남한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친한 지인들과 돌려 보는 과정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비공식인 소통구조의 형성을 동반한다.³⁴⁾ 더욱이 문화에는 가치와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적 담론을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공적 담론의 위기 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5.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1) 사적 담론을 위한 공간

사적 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사적 영역이 개인적 영역과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 담론의 공간은 개인 혹은 가족의 공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33) 남한의 방북자들의 주요 숙박하는 고려호텔이나 양강도호텔의 음식도 조미료를 많이 쓰는 등 남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한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나 개성공단의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도 남한 여성들을 쫓는 경향이 있다.

34) 남한 영상물 등은 거래되기보다는 친구들끼리 복사하고 돌려본다고 한다(탈북자 PS1 면접, 2005. 11. 2).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는 남한방송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사람들은 대부분 '록화물'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접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볼 때 가장 북한에서 시장의 활성화와 개인 단위 사업의 확대는 사적 담론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비록 합법화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주의 원칙이 구현되는 곳은 아니다. 시장은 다양한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담론과는 다른 담론이 형성될 토대를 마련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난으로 비롯된 음식업종은 사적 담론 형성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음식에 소질이 있는 어머니가 집에서 식당을 차리고 손님을 받았는데, 간판도 달지 않은 비공식적인 사업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음식 솜씨가 좋아 손님이 몰려왔다고 한다.³⁵⁾ 단순한 상품거래의 경우와 달리 이처럼 개인이 영업하는 음식점에서는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체류하므로 다양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법적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판매자나 구매자 서로가 일종의 동지의식을 갖고,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사적 담론을 위한 공간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경작지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식량자급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개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반합법적으로 직장도 쉬는데, 농업의 특성상 개인 단위보다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사적 담론 형성의 중요한 공간적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매대(일종의 간이 판매점)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견적으로는 조직이나 상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수행하는 사적 영업이라

35) 탈북자 면접 PS3(2005. 11. 4).

고 할 수 있다. 음식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지만 매대에서도 주인과 손님, 그리고 손님 간의 사적 담론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능력이 있는 개인은 공공기관을 통해 매대를 임대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건축까지 시행하는 매점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에 소속된 매대와 달리 개인적인 매점은 판매가격도 흥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사적 담론의 공간이 될 수 있다.³⁶⁾

새로 생겨나는 여가시설도 사적 담론의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당구장이나 게임장이 그 예이다. 전통적인 놀이나 여가는 지역 단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여가시설은 동일한 취향이나 소득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것은 일단 사회적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적 담론을 위한 네트워크

사적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조직이 와해됨에 따라 비공식 부분이 활성화되며 생겨난 시장과 같은 자생적 경제 영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거래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겨남을 의미한다. 중국 등을 통하여 물건을 반입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도매와 소매상 등 상품을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

36) 매대나 매점은 공식적으로 사업관리소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탈북자 면접 PS2, 2005. 11. 5).

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⁷⁾ 그런데 7·1조치 이후 합법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품 유통망은 비합법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지만 은밀성을 띠면서도 강한 연대감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전히 가내 판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연고가 거래 네트워크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³⁸⁾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경향, 예를 들어 친한 친구나 가족 등이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핵가족화와는 반대로 광범위한 친족관계가 중시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친인척과의 유대가 복원되고, 식량 획득, 상품 거래 등의 이유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타 지역의 친인척도 다시 중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혈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 관계는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역시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득이라는 근대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내 분업구조, 이를테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도소매 관계 등도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정도의 부를 축적한 ‘돈주’의

37) 탈북자 면접 PS11(2005. 11. 6).

38) 옷가지, 특히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고급으로 평가받는 남한산 옷가지 등은 집에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탈북자 면접 PS11(2005. 11. 6).

39) 탈북자 면접 PS21(2005. 11. 6).

출현은 자본주의와 유사한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기도 한다.⁴⁰⁾ 그런데 주목할 것은 돈주들이 시장 내, 즉 비공식 영역에서만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비료나 종자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없는 공장이나 농장 등 공식 영역에도 진출해 투자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식 영역을 아우르는 경제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남비료의 경우 제일 불리한 조건이 일제시기에 건설한 설비의 철관들이 산화되어 구멍이 많다. …… 그것의 보수를 오랜 주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철관은 35년이 되기 전에 계속 구멍이 나고 하니끼는 불소강으로 이제는 교체를 많이 하고 그런데 …… 결국은 돈주들을 끼고 불소강을 들여온다.⁴¹⁾

비공식 영역의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뇌물과 같은 불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제시스템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일종의 고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당료나 관료 등 공적 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을 감당할 만큼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 이러한 공생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의 경우도 보안성이나 국경수비대, 세관원 등 통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과 상인들 간의 공생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²⁾ 이러한 관계

40) 돈주는 다시 큰 돈주와 새끼 돈주로 나뉘는데 북한 인민들을 이들을 '사회주의 자본가'라고 부른다. 함흥이나 단천 등지에는 10만 달러 정도의 투자 여력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자본가들이 몇 명씩 있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21, 2005. 11. 6).

41) 탈북자 면접 PS21(2005. 11. 6).

는 명백하게 불법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 환경이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경제난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환경의 변화는 시장과 같이 새로운 공간뿐 아니라 기존 작업장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농장의 경우 작업반이나 분조 단위의 경작을 시행하면서, 소출의 일정 부분만 농장에 지불하면 나머지는 자신들의 것으로 하는 비율이 전체 사람의 3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⁴³⁾ 이 경우 공식적인 농장의 당적 조직, 농민 조직과 다른 공동 경작단위 내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경제난과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초래된 새로운 사회계층 분화도 새로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롭게 생겨나는 부유층의 경우이다. ‘돈주’로 지칭되는 자본가집단 등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상호교류하면서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⁴⁴⁾ 이들은 커다란 TV와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나 피아노 등 문화용품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면서, 서로 비교하며 품평할 정도이다. 자녀들의 좋은 교육환경 구축 등 공동 관심사를 갖고 서로 소통한다고 할 수 있다.⁴⁵⁾

42) 국경지역에서 물건의 반입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부터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기구, 예를 들어 성능 좋은 어선, 목이 좋은 매대자리 등을 배정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탈북자 면접 PS4, 2005. 11. 8).

43) 탈북자 면접 PS22 (2005. 11. 12).

44) 옷을 파는 경우도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 나뉜다고 한다. 즉, 고급 수제 옷을 간부 등 상류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기성복을 파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급 옷을 파는 사람들은 개인적 소개로 집을 찾아다니면서 판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외화벌이꾼의 증대도 공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당이나 기업, 그리고 병원에 이르기까지 운영비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재정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능한 조직들 모두가 경쟁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중국 등지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 식당이나, 중동 지역의 북한관련 건설회사나 인력송출회사의 진출, 아프리카에서 개업하는 북한 의사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 외국 생활을 한 뒤 귀국하는데 대부분 북한 기준에서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한다고 한다. 이들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서로 교류하고, 외국 생활 경험을 토대로 차별적인 구매형태를 보이는 등 다른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일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급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역 단위의 서로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⁴⁶⁾ 식량난이 심했던 동북부 지역, 중국과의 거래가 활성화된 국경지역과 내륙지역, 현재 북한 최대의 무역거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 ‘혁명의 수도’ 평양 그리고 개성공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개성 지역 등 경제적 환경은 다양하다. 생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 즉, 상대적으로 개방화가 진전된 지역주민 간의 소통구조나 열악한 지역의 소통구조는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새 세대’의 부각도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30대부터 새 세대로 보는

45) ‘양문(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집안 장식 등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한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11, 2005. 11. 6).

46) 탈북자 면접 PS21(2005. 11. 6).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앞선 세대와 의식이나 행동에서 차이가 있다. 해방이나 전쟁, 북한의 건국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산업화 이후 세대인 이들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실리적이다. 앞선 세대가 이념지향이고 농업기반의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새로운 세대들은 비록 당 일꾼들이라고 할지라도 40세 이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⁴⁷⁾ 차별적인 세대의 집단은 그들끼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소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미디어의 확산도 사회관계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물론 한국과의 통화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는 휴대폰 사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업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유선전화 사용도 국내 단위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롭고 광역적 성격을 갖는 네트워크의 출현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사적 담론의 내용

공적 담론과 구분되는 사적 담론은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자 면담이나 최근 소설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실용주의나 성과에 관련된 것이다.

상준이 이 사람, 난 동무가 사넨 줄 알았는데 색시한테 사죽을 못 쓴다며? 땅크를 몰았다던 사람이 그럼 못 써요. 무조건 이겨야지, 나치

47)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도 다르며 실리적이라는 명분 아래 불법적인 일에도 거리낌 없이 관계한다고 한다(탈북자 면접 PS22, 2005. 11. 12).

럼, 옳던 굿던…….

— 로정범, “안해의 소원,” 『조선문학』(2006. 8).

처녀를 위해서라도 대형차를 지나치게 아끼지 말구 부쩍 채라구. 웬
간한 건 깊어두구……. 생활이란 참빗처럼 간간하게 훑어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해. 어찌면 웅덩이건 돌이건 모래건 덩불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밀어가는 물의 흐름과 같은 거야.

— 라희남, “세월이 지난뒤,” 『조선문학』(2006. 12).

기업관리, 그것은 곧 원가이며 리윤이었다. 국가에 리익을 주게 될
것인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인가, 공장, 기업소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한
다 해도 언제나 이것부터 생각해야 했다.

—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83쪽.

그때 적지 않은 당, 경제 지도일꾼들이 상민동무가 반당분자들을 추
종하여 수정주의 경제리론인 리베르만주의를 기업관리에 도입하려고
한 반당적 일꾼이라고 신랄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민동무를
그렇게 일면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구의 범벅이 된 기업관리
방법이 수정주의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업관리
를 간지게 잘해서 비료생산을 끌어올리려는 불타는 열정에서 벗어진
것으로 리해하였습니다.

— 백남룡, 『동해천리』(평양: 평양출판사, 1996), 321쪽.

외화를 벌어야 합니다. 외화만 가지면 전국을 비롯하여 생산을 정상
화하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자들을 사올 수 있습니다.

—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58쪽.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용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절차를 중시하던 기존의 담론과는 다른 것인데,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인용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가치의 차원에서 결과, 특히 이익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윤을 중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가치라는 점에서 기존 담론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인용문의 경우는 그동안 북한에서 비판의 중심이었던 동구 중심의 수정주의까지 수용하는 내용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인용문의 경우는 외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인데, 자력갱생이나 자립경제와 같은 주체경제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담론에서 중시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물질과 풍요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두 참, 우리도 집을 좀 번듯하게 꾸리고 삽시다. 옥이도 제대되어 오겠는데…… 오면 시집도 보내야지요. 다른 집에들 좀 가보라요.

— 장선홍, “그들의 행복,” 『조선문학』(2006. 7).

그 지방 특산물과 별식들로 차린 푸짐한 대접에 습관된 리창전이였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런 간소한 쥐기밥을 먹자니 가책으로 목이 메었다.

— 백남룡, 『동해천리』(평양: 평양출판사, 1996), 59쪽.

류행과 시대풍조에 뒤질세라 새옷을 지어집고 머리모양을 꾸미고 거리에 나서는 도시의 많은 중년 여성들에 비하여 여인의 외모는 초라할 정도로 수수하다.

— 백남룡, 『동해천리』, 6쪽.

윤병암은 터전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는 집을 교환하면서 …… 열쌍 한 집으로 전변시켰다. …… 지방 산업공장에 다니던 안해를 사직시키고 터전 농사를 짓게 하였다. 자못 근면한데다 손부리가 영글고 눈썹미가 좋은 그의 안해는 터전에 심는 마늘과 도마도에서는 물론 돼지, 개, 닭을 잘 길러 해마다 굉장한 수입을 얻었다.

—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6쪽.

그 사이 아버지는 외국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원래 출장을 갔다가도 무엇을 들고 오는 일이 없는 아버지는 외국출장에서 돌아올 때도 비행기 안에서 녹이다 남은 사탕알을 딸한테 쥐여주는 것으로 기념품을 대신했다. 그런 아버지임을 잘 아는 영혜는 이번에도 면도기 이야기는 까맣게 잊을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칭해가 있는 곳에 출장을 간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뜻밖에 그 고급면도기를 내놓으며 칭해에게 가져다주라고 했다. 영혜는 기쁨보다 도리어 놀라움이 더 컸다. 칭해는 면도기를 들고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인주세요.” 영혜는 칭해한테서 면도기를 받아들고 이것은 스위치, 이것은 전지, 청소할 때는 이렇게 분해하고 …… 하는 식으로 일일이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가 실지 동작을 해보이고 스위치를 넣었다. 면도기는 사르릉 소리를 내며 기분 좋게 돌아갔다. “약전 전문가가 다르구만.”

— 박용운, 『젊은 선장』(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6), 71~72쪽.

가로수 밑에 처녀 총각이 마주서서 무슨 이야기인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총각은 분명 차인혁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불상사를 듣고 지금쯤은 집에 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리의 가로수 밑에서 처녀와 만나고 있다니……. 게다가 윤덕준의 어두운 마음과는 달리 두 젊은이는 매우 밝은 기분 상태에 있는 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주고받는 말들도 매우 흥겨운 것인 듯 몇 마디만에 서로 번갈아가며 웃어댄다. 윤덕준은 늙은이다운 호기심으로 처녀를 살피보았다. 얼굴도 몸매도 돋보일 만큼 아름다웠는데 그보다 더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다. 봄날에 맞는 밝은 색깔의 꼭 맞는 의복이며 굽 높은 반짝거리며 신발이며 외국영화에서나 보았던 듯한 중절모 비슷한 모자며 손에 든 황금빛 사슬이 달린 가방이며…… 한마디로 말하여 어느 외국 영화에서 튀어나오듯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윤덕준은 물론 여자들의 옷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고, 특히 여자들이 즐겨 화젯거리로 삼는 옷의 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지나가던 처녀들이 그 처녀의 옷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질이나 맵시가 대단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 최영학, 『우리의 집』(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7~8쪽.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외적인 치장이나, 물질적 풍요, 수입 증대 등이 중요한 가치로 북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의 두 개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의 기준이 외국 문물(외국 출장에서 사온 물건)이거나 외국 문화(외국 영화의 장면 같다는 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치나 사고나 투영되는 이야기의 환경이 가족, 연애 혹은 가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욱더 적극적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사적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 북한의 핵심적인 선전 매체로서 여러 단계의 검열을 거친 후 발표된다는 점에서 사적 담론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소설의 경우 공적 담론의 내용과 다른 담론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대화에서는 공식 담론과는 다른 내용의 대화가 오간다고 한다.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년 사설이 발표되면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어떤 방향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등⁴⁸⁾ 실질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6. 맺음말: 사적 담론 형성의 의미

북한의 사적 담론은 현재 형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배담론으로서 공식 담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과도 유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담론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경제난으로 비롯된 북한체제 내부의 각 하위체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북한 인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

48) 탈북자 면접, PS4(2005. 11. 8).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마당으로 지칭되는 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사적 담론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사회관계적 조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나 남한과 같은 외부세계의 접촉 과정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의사전달 매체의 확산, 사회이동의 확대도 새로운 담론 형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형성되는 사적 담론이 공적 담론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대항담론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기존의 통제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⁴⁹⁾ 무엇보다도 새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에 기득권 집단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성공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상류층도 당이나 정부의 권력기구와 결탁되어 있다는 점도 사적 담론이 대항담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공적 담론의 위기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사회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체제변혁과 곧바로 연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적 담론이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혁적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사적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일단 개인주의화되었다가 다시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는 것과는 차

49) 과거에 비해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지도층과 관련되거나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당의 하부조직, 내각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탈북자 면접, PS21, 2005. 11. 6).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되고 오랫동안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정확히 말해서 공동체 중심의 일상생활이 익숙한 현실은 사적 담론이 개인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적 수준으로 발전할 여지를 넓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사적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과 네트워크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앞으로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사적 영역이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체제변혁이 이루어진 중요한 원인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라고 본다면, 북한의 경우도 권력구조의 안정성이나 사회통제의 단단함으로 새로운 변화의 추세를 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적 담론이 대항담론으로 발전하는 수준이나 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나뉠대로의 생존전략을 습득한 일반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국가의 실질적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적 담론의 확대 발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 접수: 2월 28일 / ■ 채택: 4월 5일

참고문헌

국내문헌

- 아리에스 외 엮음, 『사생활의 역사 1·2·3』(서울: 새물결, 2002).
-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1).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득룡, “공적 삶과 사적 삶: 제3의 사적 영역의 가능성,” 『범한철학』, 19집 (1997).
-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사적 영역의 성립 및 근대적 개인의 탄생 그리고 편지 형식 소설과의 관련에 대하여,” 『민족문학사 연구』, 제20호(2002).
-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 문순홍, “앙드레 고르: 현대 자본주의 비판과 사적 영역의 재탈환 정치,” 『문화과학』, 통권 제27호(2001년 가을), 235쪽.
- 백선기·김소라,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동성애에 대한 ‘매스미디어’와 ‘게이 커뮤니티’의 담론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6(1998).
- 이상호, “사회질서의 재생산과 상징권력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1998).
- 이영립, “근대 초 프랑스에서의 사적 영역의 창출: 개인, 사회, 국가,” 『사회와 역사』, 통권 63집(2003. 5).
-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종영, “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을 둘러싼 담론투쟁에 대하여,” 이영환 엮음,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서울: 함께읽는 책, 2003).
- 이흥균, “사적 영역의 팽창에 의한 공적 영역의 파괴,” 『현상과 인식』, 30권

3호(2006).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미의 의식 변화,”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 2005).

외국문헌

Cohen, J and A,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Boston: MIT Press, 1992).

기타자료(면접)

탈북자 PS1 면접(2005. 11. 2).

탈북자 PS1 면접(2004. 10. 31).

탈북자 PS2 면접(2005. 11.4).

탈북자 PS2 면접(2005. 11.5).

탈북자 PS3 면접(2005. 11.4).

탈북자 PS4 면접(2005. 11.8).

탈북자 PS11 면접(2005. 11.6).

탈북자 PS17 면접(2006. 2.28).

탈북자 PS18 면접(2006. 2.28).

탈북자 PS21 면접(2005. 11.6).

탈북자 PS22 면접(2005. 11.12).

탈북자 PS22 면접(2006. 3.22).

A Prospect of Private Discourse Formation: Focusing on Crisis of Public Discourse

Lee, Woo-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research tries to focus on changing process of a dominant discourse in order to investigat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n system. In general, change of a dominant discourse links with formation of a counter-discourse. In other words, formation of a counter-discourse means a break of the existing dominant discourse, and also its characteristics helps to estimate aspects of social change.

It is a private discourse as a counter-discourse, though there are many other kinds of counter-discourses, that this research tries to examine. The public sphere in North Korea is considerably large, because it seeks strong social integration. In North Korea, various control systems has been established not only in political area but also in everyday life, so that the private area restricted seriously. The multilevel reviews of life (saenghwal chonghwa) held in the party organization, workplace and neighborhood unit (inminban) is one representative example showing little space of private life. Reduction of the private area also means limitation of

private discourse. In such condition, private discourse formation itself becomes a foundation to bring a crack of existing dominant discourse and shape a new counter-discours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a possibility to form private discourse as a part of changing prospect in North Korean system. Thu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structure in socialist system so as to make conformity of discussion related to private discourse 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elational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discourse and the private discourse. It examines about an existing form of the private discourse in a society which the public discourse is dominant, a structure of specializ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discourse, and a path and form to shape the private discourse in socialist system in transition that the public discourse is losing its dominant status.

Keywords : Private Discourse, North Korean Society, North Korean Social
Change, Discourse Structure in Socialist Society